

[세월호 일지] 침몰부터 선체 직립까지 1461일간 기록

- ▷2014년 4월
 -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에서 세월호 침몰(해경 발표 : 구조 174명, 실종 284명, 사망 6명)
 - ▲17일 박근혜 대통령 현장 방문(김정환 국무총리 부속)
 - ▲18일 세월호 안전 침몰
 - ▲19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발부
 - ▲23일 청해진해운 및 유영언 전 회장 자택, 금수원 등 인수조사
 - ▲23일 세월호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 적발 15명 검거(경찰,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 ▲23일 최초 신고한 단원고생 시신 발견
 - ▲25일 민간잠수사 12명 투입
 - ▲26일 세월호 선박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 ▲26일 '다이빙벨' 현장 첫 투입 실패
 -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참사 책임에 사의 표명
- ▷2014년 5월
 - ▲4일 박근혜 대통령 사고현장 재방문
 - ▲6일 민간잠수사 사망
 - ▲7일 세월호 해구 수색요원 노출헬로 긴급수출(해경청장 대국민 사과)
 - ▲13일 유영언 전 회장 출석 등보
 - ▲15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명 기소
 - ▲19일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화 발표(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 ▲21일 여아, 세월호 국경조사 합의·청와대 포함
 - ▲22일 유영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 ▲25일 여아, 세월호 특위 구성 완료·위안당 심재철
 - ▲29일 세월호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통과
- ▷2014년 6월
 - ▲2일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개최
 - ▲10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3명 첫 재판
 - ▲12일 유영언 전 회장 시신 순천서 발견(경찰이 해당 병차로 차기에 신원 확인 지시)
 - ▲26일 정홍원 총리 유영언 구속
 - ▲30일 세월호 국경조사 합의 보고 투입
 - ▲30일 유영언 전 회장 구속근거인 구원파아인도 일명 '산파파' 구속기소
- ▷2014년 7월
 - ▲1일 유영언 전 회장 친형 병설미 구속기소
 - ▲3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특별법 발의
 - ▲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행, 국회 의원 178명 동참
 - ▲10일 박근혜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합의 16일 차 합의(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 ▲10일 유영언 전 회장 아내 권운자씨 구속기소(유영언 전 회장 친동생 변호사 구속기소)
 - ▲14일 세월호 유가족경연대회 등 15명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
 - ▲15일 단원고 학생 46명 등 국회의사당 항해 도모행진
 - ▲21일 7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재개도
 - ▲21일 유영언 전 회장 변호사제로 발원된지 40일만에 신원 확인
 - ▲21일 검찰 부실판례·진도VTS 해경 13명 전원 기소
 - ▲22일 DNA 대조 결과 비참으로 유영언 전 회장 사망 확인 발표(초대경인전사자검정, 부실수사 책임 지고 사표 제출)
 - ▲25일 유영언 전 회장 장남 대권외와 도미 조력자 박수경씨 체포
 - ▲28일 일명 '김 알파' 김명숙씨, 운전기사 양희정씨 부인과 함께 자수(유영언 전 회장 운전기사 양희정씨 자수)
- ▷2014년 8월
 - ▲6일 검찰, 해운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해수부, 해운조합 관계자 등 총 43명 기소)
 - ▲7일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의결 완료
 - ▲19일 세월호 유가족, 합의안 반대 재협상 요구
 - ▲29일 유언 아내 김명숙씨, 당시 중간(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 ▲30일 세월호 국경 특위, 활동 종료
- ▷2014년 9월
 - ▲1일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변인회의 3차 회동 결렬
 - ▲4일 유영언 전 회장 측근김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 ▷2014년 10월
 - ▲6일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
 - ▲14일 세월호법 후속 협상 재개·원내대표 회동
 - ▲28일 102일만에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수습
 - ▲31일 세월호 3발 '3+3 회동'서 타결
- ▷2014년 11월
 - ▲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세월호 3발 7일 본회의 차기 재확인
 - ▲6일 '논해수위' 법사위, 세월호특별법·유영언 전 회장 법안
 - ▲7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3발 '일괄 처리'
 - ▲11일 광우잠입 이준석 선장 장역 36년, 나머지 선원 14명 장역 5~30년 선고
 - ▲11일 정부, 세월호 수색종료·산파(세월호 탑승객 176명 중 172명 구출, 39명 사망, 실종 9명)
 - ▲18일 세월호 침몰사태로 범정부대책본부 해체
- ▷2014년 12월
 - ▲27일 인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 영결식
- ▷2015년 1월
 - ▲12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5년 3월
 - ▲5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
- ▷2015년 4월
 - ▲1일 해수부,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착수 발표
 - ▲8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보상 등 전체 비용 5천548억원 추정 발표
 - ▲10일 해수부 기술검토팀 TF '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 발표
 - ▲22일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공식 발표
 - ▲28일 광주교범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 장역 1년6월~12년 선고
- ▷2015년 5월
 - ▲1~2일 세월호 유가족 등 세월호 시행령 폐기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경철과 대치
 - ▲14일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선체 인양 추진단 헌법시
 - ▲15일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배상금 총 129억5000만원 첫 지급 결정
 - ▲22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 입찰공고
 - ▲28일 국회 여야, 세월호 시행령 타결
- ▷2015년 6월
 - ▲4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22일 세월호 인양 입찰 등록 마감, 7개 컨소시엄 참여
- ▷2015년 7월
 - ▲15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선정
- ▷2015년 8월
 - ▲4일 해수부, 세월호 인양업체로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 ▷2015년 9월
 - ▲19일 세월호 인양 준비 작업 착수
- ▷2015년 10월
 - ▲29일 대법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죄 확정
- ▷2015년 11월
 - ▲12일 대법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 장역 1년6월~12년 확정
 - ▲19일 법무부, 청해진 해운 등에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 ▲27일 대법 세월호 부실판례 진도VTS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확정
 - ▲30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경기도교육청에 단원고 2학년 교실 존재 요구
- ▷2015년 12월

4년의 기억 간직한 팽목항 · 목포신항

그날의 아픔 고스란히 간직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게” 기다림의 항구 전남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는 4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추모객들이 달아놓은 노란리본은 어느새 수천개를 넘어 노란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세월호 조형물은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에도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팽목항과 목포신항은 박물관이나 갤러리처럼 지정된 전시공간이 아니다.



2016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팽목항은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피붙이를 기다렸던 항구였으며 목포 신항은 참사 3년만에 물로 올라온 세월호가 거처된 장소였다. 하지만 추모객들은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희생자와 미수습자 죽음을 위로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노란리본을 매달았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뒤집어진 세월호'와 '노란리본 상징 조형물'을 세웠다. 하나 둘씩 4년 동안 모인 위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팽목항 방파제 입구에는 “그날의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모여 '세월호 기억의 벽'이 만들어져 있다. 4656장의 타일에 전국 26개 지역 어린이의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다. 옆에는 '기다림의 의자'가 놓여져 있고 노란리본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맞은편에는 미수습자의 사연이 담긴 '이제 그만

에 정다. 국립해양안전관은 팽목항에서 500여m 떨어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원 10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안전체험시설, 유스호텔,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추모 조형물 등이 들어선다. 오는 9월 건축 토목, 전기 등의 발주를 거쳐 따르면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관은 2021년 3월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립해양안전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팽목항 등

에 조형물이 그대로 보존된다”며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월호 직립 이후 선체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목포 신항 외곽에 조성돼 있는 조형물 준치 방안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목포신항이 국가보안시설이어서 조형물을 진도 국립해양안전관으로 보낼 지 지역에 있는 전시관 등으로 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

‘기억의 항구’ 팽목 · 목포신항 4년 전 아픔 여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전남 목포신항만, 철제 울타리에 내걸린 노란 리본들이 거센 바닷바람에 나부꼈다. 노란리본이 빛을 바랬지만 추모의 마음은 온전했다. 리본에 새겨진 '아픔을 보듬겠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글씨는 뚜렷했다.

세월호 선체와 내부 잔해물의 흉측한 모습은 4년이란 세월을 오롯이 간직했다. 발걸음에 눈이 슬고 빛깔은 잿빛에 가까웠다. 이를 지긋이 바라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남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미녀(48·여)씨가 말문을 열었다.

“세월호 탑승객 304명의 희생은 공동체와 국가를 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찾고,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사회 체계를 만들어야죠.” 김씨는 “지난 4년간 매 순간이 고비였고 사투였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공감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가 어떻게 기울기 시작했고 왜 짧은 시간에 침몰했는지, 기계적 결함은 없었는지, 수밀 장치는 왜 열려 있었는지,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규명해야 할 사안도 수두룩하다. 같은 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도 가족의 간절함이 이어졌다. 팽목항 방파제에 매달린 노란 리본의 수와 추모객 발걸음은 줄었지만,

항구에 새겨졌던 참사의 아픔과 고통은 잊혀지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방파제 벽면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벽' 글귀를 하나하나 읽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희망의 등대 주변에선 '별이 돼 빛나소서'라는 리본과 함께 내걸린 종소리가 애처롭게 울려퍼졌다. 등대 한편엔 “미안함에 노란 리본을 들어야 했다”는 초등학교생의 추모기도 놓여 있었다. 마쿠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휴가를 내고 가족과 팽목 분향소에 온 박모(31·여)씨는 “4주기를 앞두고 처음으로 아픔을 찾았다. 늦게 찾아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팽목항을 찾은 김모(33)씨도 “사회 전반에 퍼진 탐욕·불법·비리·안전 불감증·인권 경시 등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지만, 사회는 아직 바뀐 게 없다”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확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